

작품 내용

제 목	내 것이 아닌 독후감
내 용	“내일까지 독후감 써오세요. 수행평가입니다.” 라고 국어 선생님이 어제 수행평가를 한다는 것을 공지 했다. 그러나 나는 귀찮아서 책을 읽지도 않았다. 심지어 오늘 저녁에 엄마랑 병원에 가기로 했던 것이 생각났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쓸 시간이 부족할 것만 같았다. 나는 초조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서둘러 좋은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문득 요즘 인터넷에 좋은 독후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역시 인터넷에는 좋은 글이 많이 있었다. 사람들이 써 놓은 글들은 마치 작가가 쓴 것처럼 잘 쓴 것 같았다. 만약 내가 인터넷 글들을 그대로 따라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검색 창 맨 아래에 있었던 글을 참고하여 내가 쓴 것처럼 평소 나의 언어로 수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런 방식이면 적어도 남은 2시간 이내에 독후감을 쓸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불안함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혹시 독후감 소재가 비슷하면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재도 바꿔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도 없는데 언제 그걸 다 바꾸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몇 몇 단어만 바꾸고 독후감을 썼다. 약 1시간 30분이 지난 뒤, 나는 독후감을 완성했다. 글을 다시 읽어 보니, 그래도 이 정도면 인터넷 글을 따라 썼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고 선생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결국 나는 이 글을 가져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인터넷의 독후감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 보니, 맨 아래에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는 용도로 활용하면 안된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상관 없겠지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인터넷 글을 작성한 사람과 나는 서로 모르는 관계라서 나중에라도 발견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선생님께서 독후감을 쓴 종이를 걷겠다고 말씀하셨다. 인기 없는 글을 따라 썼지만, 그래도 들킬까봐 마음이 조마조마 했다. 나의 독후감 종이를 걷을 때에는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선생님께서 친구들의 종이를 모두 걷고난 후, 선생님께서는 내일 점수를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나는 하루종일 긴장됐다. 그리고 그 긴장감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짐과 동시에 부끄러움과 절망감으로 다가왔다. 다음 날 수업시작 종이 울리고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한명씩 불렀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선생님께서 나를 보고 말씀하셨다. “혹시 이 독후감은 인터넷에서 가져 와서 쓴 거야?” “네? 하하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네가 쓴 이 독후감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과 너무 비슷해서 말해 주는 거야. 솔직하게 말해 봐”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정말 이렇게 들킬 줄은 몰랐다. 나는 ‘어떡하지 혼날려나?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거짓말을 해야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짧은 시간에 내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다. 나도 모르게 부끄러워서 얼굴이빨개지고 있었다. 결국 나는 사실대로 인터넷에서 본 글을 따라서 독후감을 썼다고 선생님께 고백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따라 쓴 것이 맞아요. 죄송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께서 허락없이 인터넷에 있는 글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고, 정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설명해 주셨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수행평가 점수는 0점이 되어 버렸다.

‘내 것이 아닌 독후감을 베껴 썼으니 어쩔 수 없지. 대가를 치뤄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나는 수행평가를 할때 인터넷에 있는 글을 베끼지 않고 나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쓰기로 결심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사람이 속상할 것 같기도 했다. 그리고 혼자 힘으로 작성하다보니 완성하고 나선 뿌듯하기도 했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다른 사람의 글을 포함하여 모든 창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저작자의 노력과 마음을 존중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반드시 내 힘으로 독후감을 쓸 것이다!